

제3회 주한 아세안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祝 辭

2017. 11. 27(월)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금 융 위 원 장
최 중 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오늘 만찬에 참석해주신
말레이시아 다토 로하나 빈티 람리(Rohana binti Ramli)
대사님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 대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해 새로 부임하신
응웬 부 뚜(Nguyen Vu Tu) 베트남 대사님께
늦게나마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홍식 금융감독원장님, 하영구 은행연합회장님,
그리고 은행장님들과 기관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금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대사님들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를 만나듯 익숙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의 깊고 오래된 협력관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對 아세안 협력관계의 중요성

아세안은
인구 6억 3천만명, GDP 2조 6천억 달러,
중위연령 28세, 평균성장률 5%의
젊고, 역동적인 시장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의 성장 잠재력을
일찌감치 인식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투자처가 되었으며,
한국도 아세안의 5번째 교역국이 되는 등
양측의 협력관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번달 중순 아세안 순방시
상품교역 중심이었던 양측의 관계를
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으로 확대하는 ‘신남방정책’과
사람(People), 평화(Peace), 상생번영(Prosperity) 중심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밝히시고,

이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국과 아세안이
서로를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는
한국과 아세안이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협력을
실현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3. 한-아세안 금융협력 방향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분야의 협력도
한층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한-아세안 금융교류는 역대 가장 활발한 수준입니다.

2017년 6월말 기준 아세안지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 점포수는 총 135개로
2009년말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해외 점포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한국 금융기관의 진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저는 한-아세안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우리 금융기관의 현지 영업도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세안 진출국에서
고용 확대, 금융산업 발전 등도 함께 고려하는
신뢰받는 투자자와 기업가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주 은행연합회장님께서
캄보디아 유치원(11.17일),
베트남 초등학교(11.21일)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보여 주셨듯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현지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 규제와 관행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세안 지역은 세계 그 어느 지역보다
젊고 역동적인 곳입니다.

이에 맞춰 우리 금융기관들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이들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Pause]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대사님들께서도
한국 금융기관들이 아세안의 경제·금융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금융부문에 관심을 갖고
찾은 교류와 만남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만나 서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찾는다면
상호 협력관계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저희 금융당국도
아세안과의 협력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이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정책경험들은
아세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출·보증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융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
한국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적인 핀테크 혁명에 맞추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험공유와 협력사업 발굴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사님 여러분들께서도,
한-아세안의 상생번영(Prosperity)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맺음 말씀

내외 귀빈 여러분,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세계 최대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공적인 올림픽의 개최를 위해,
경기시설, 교통, 숙박 등
막바지 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아세안센터도

지난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아세안 회원국들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년 2월의 추위는 오늘보다 심할수 있겠지만,
올림픽의 열기는 이를 모두 녹일 만큼 강할 것입니다.
오늘 자리해주신 대사님들을 비롯하여
아세안 국민들이 이를 함께 즐길 수 있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